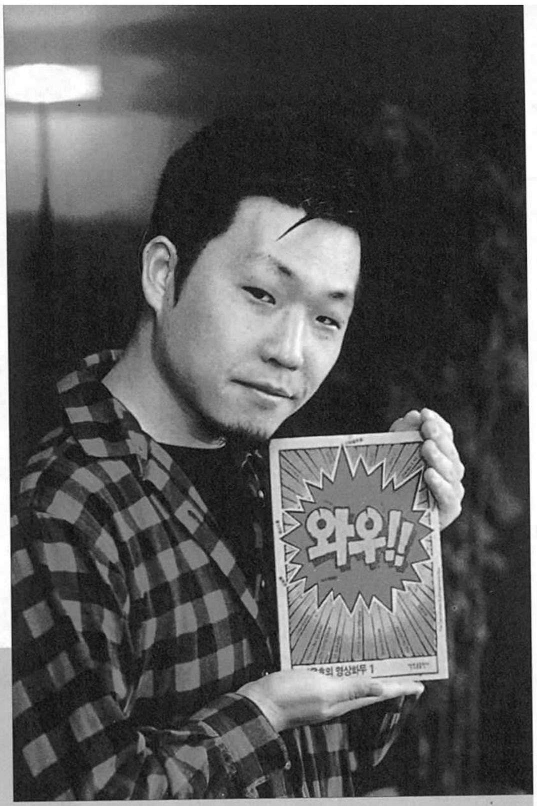
내서가의책한권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또다른 시각

일상탐험가 안이영노씨가 뽑은 김용호의 《와우!!》



"읽는 순간 내가 쓰고 싶은 글이라고 느꼈습니다. 영화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읽어낼 수 있는 책이었죠. 제가 쓰고 싶은 글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글이었거든요. 이 책을 읽은 후 한동안 저는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대중문화평론가이자 문화기획자, 인디밴드 '허벅지'의 리더, 그리고 자칭 일상탐험가인 안이영노씨(34). 그가 서가에서 뽑은 책은 《와우!!》(김용호 지음, 박영률출판사)다. 그의 직함을 떠올려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 책은 영화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화를 통해 현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하고, 다시 돌아 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을 한마디로 '더 이상 영화비평이 아닌 영화비평'이라고 말한다. 영화를 대상으로 분석,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더 잘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다는 것. 저자는 영화를 빌어 현대인들의 자기정체성 문제, 환경문제, 생명공학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한다. 이 책에 '예를 들면'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도 그 까닭이다.

그가 이 책을 처음 접한 때는 1990년대 중반, 대중문화에 대한 그의 관심이 절정에 다다른 시기였다. 그는 시네마테크를 운영하는 한편, 무크지 《또 하나의 문화》에 글을 쓰기도 했다. 인디밴드 '허벅지'를 조직한 것도 이즈음이다. 저자인 김용호씨는 그와 함께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여러 가지 문화프로젝트를 집행하던 파트너. 그는 가제본 상태로 이 책을 읽었다.

"읽는 순간 내가 쓰고 싶은 글이라고 느꼈습니다. 영화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읽어낼 수 있는 책이었죠. 제가 쓰고 싶은 글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글이었거든요. 이 책을 읽은 이후 한동안 저는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책이란 모름지기 모든 사람들이 언어와 지식의 장벽을 느끼지 않고 많은 것을 사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그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을 선택하기까지 그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든 책은 다름 아닌 《빠빠라기》와 《아메리카 인디언의 가르침》. 두권 다 현대문명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재미있고 쉽게 풀어낸 책들로 우리에겐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화장실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화장실을 즐거운 마음으로 나설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 최갑수 기자

열린 마당

가장 좋은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❶ 출판의 승부는 기획·편집에 있습니다. 저희 열린마당에서는 경험과 識見을 갖춘 頂上의 편집자·출판미술가·사진작가 등이 온힘을 모아 '21세기를 준비하는 출판물'을 기획·편집하고 있습니다. 雄飛하는 동반자이기를 기대합니다.
❷ 베스트셀러 생활도서·유아도서 및 교구·오디오·비디오 기획·제작의 광범위한 실적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❸ 종합마케팅플랜에 근거한 표지·광고·팜플렛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획·원고작성·번역·편집·디자인·제작代行

110-121 서울·종로구 종로1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 : 739-0150(代) 팩스 : 739-0160

SAMDUK
삼덕미디어

高品質의 제작

이때까지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제판·인쇄·제본 등의 工程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고 인력부족 등으로
품질이나 납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삼덕미디어에 맡겨 주십시오.
책임제작시스템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高品質의
출판물을 납기일에 어김없이 납품하겠습니다.

110-121 서울·종로구 종로1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 : 739-0150(代) 팩스 : 739-0160
인쇄·제본공장 : 465-4707(代)